

청년 참여 20% 할당제 의무화 검토

전주시, 취업·창업·창직 활동 등 다양한 경험 제공

전주시가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지역 청년들이 시정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20% 할당제를 포함한 '청년참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시정 방향에 대한 연장선이다.

시는 청년 참여 할당제 시행을 통해 청년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역량을 키워 지역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청년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높은 대학진학률 등 최고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창직 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다문화양성 프

로그램, 대표 축제 등 중점추진 사업에 전체 참여자의 20% 이상을 청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각 부서별로 청년들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금융복지상담소와 청년금융복지 관련 교육 연계사업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대표축제 시 청년 예술가 할당제 등 전주시 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개가능한 시정정보를 청년들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전주시 청년희망단과 공유하는 등 청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전주형 청년지원 정책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이상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등글린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호차3·4동)이 23일 전주 우미린 모델하우스 앞에서 "호천지구 분양가 내려라. 아파트 분양가 등글린다 전주시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호천지구 우미린 아파트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우미건설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론타워로 청년청(청년미래처)을 전복에 설립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마련, 각 정당 등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고, 일자리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 구직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청년희망도시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또 청년창업공간인 전주다움 공동창업지원실과 청년활동공간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고, 일자리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3일 41개 자원봉사 단체와 20개 수요처 실무자와 관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61개 봉사단체 실무자들은 전주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자원봉사센터는 이들 봉사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출범 원년인 올해 실시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자원봉사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증추적 역할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상을 4대 전략과제에로 정하고, 자원봉사 단체 협력사업과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자원봉사 인센티브 등 총 2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단체)와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자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전주시 모든 소외계층 및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 갈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인사 부당 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불구속 기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령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

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출소한지 한달만에 친척 폭행 40대 구속영장 청구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친척과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씨(48,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5분경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고모 A씨(80,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관문을 발로 부수고 들어가 고모를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술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달라며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0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생활비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익산시청소년상담센터 비리의혹 무혐의처분 통보

직원들의 비리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박던 익산시청소년상담센터가 경찰로부터 무혐의처분 통보를 받으며 오명을 벗게 됐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작성된 생사문서와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비리의혹을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외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공금이 없었으며 버스 운행비 착복여부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임형택 시의원은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공문서 허위작성, 근무일지 조작, 신고절차가 없는 대학 강의, 상담실적 조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극동문의 288-9700

전주의 거리·광장, 지붕 없는 공연장 된다

25일부터 10월까지... 풍남문 광장·한옥마을 주차장 등 7개 광장 사업 추진

풍남문광장과 한옥마을 주차장, 이충호수공원 등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의 거리와 광장이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탈바꿈된다.

이에 따라,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지수 정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전주시의 문화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10월까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주차장, 아중호수공원, 전북대 대학로 광장, 동문거리, 전주 첫 마중길, 흥산광장 등 7개 광장과 거리에서 '전주시 지붕 없는 공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5개 문

화외집(진북·인후·우아·삼천·효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와 광장 등 유휴공간을 예술 동아리 공연과 청년 버스킹 공연, 공예품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지붕 없는 공연장 문화공연은 첫날인 오는 25일에는 이충호수공원(오후 2시)과 전북대 대학로 광장(오후 5시), 풍남문광장과 한옥마을 주차장(오후 7시) 등 4곳에서 열린다. 시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는 첫 마중길과 동문거리, 흥산광장을 포함한 전주시 곳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전주문화재단과 5개 문화외에서 주관하는 문화공연에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과 관객들도 전주문화재단이나 해당 문화외의 집에 신청을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상반기 공연진행 중 발견된 문제점을 피드백 할 수 있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주의 거리와 광장이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탈바꿈되면, 생활문화동호회와 아마추어 아티스트, 시민들에게 문화공연 발표 기회도 확대하고, 시민과 생활예술인, 버스커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타로카드 상담기법 지도자 연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3일전주YWCA 3층 민들레홀에서 전주시 아동·청소년유관기관 실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역량 강화연수 '타로카드 활용 상담기법 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관내 청소년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등 현장 실무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상담 및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과의 소통과 마음 나눔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이성자 썩(SSAC) 심리상담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타로카드를 활용한 상담기법 연수를 실습위주로 진행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연수를 실시해 질 높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